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 지역에서 애쓰는 의료인들과 인도적 협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게인즈빌 공동체 및 잭슨빌 본당에 오셔서 사순피정을 해주신 김 데레시아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영, 육 간의 건강을 바랍니다.

[잭슨빌]

- 매일미사책 5 월부터 10 월까지 6 개월 분을 주문합니다. 미사책 원하시는 분이나 부활꽃 봉헌하실 분은 전례부장 최영선 마리아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목요일(4/18) 전까지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7 시 30 분에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 사순기간 동안 한 말씀묵상이 오늘 주일로 4 주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간을 위해 신부님이 안수를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 주일(4/14) 친교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동유럽 성지순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9 월 25 일까지 (9 박 10 일)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신청문의 904-573-1833 / sftccm@gmail.com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 다다음주 부활절 미사는 4 월 21 일(일요일) 잭슨빌 본당에서 오전 10 시 30 분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17	\$160	-	-	\$277
잭슨빌	\$153	\$200	-	-	\$353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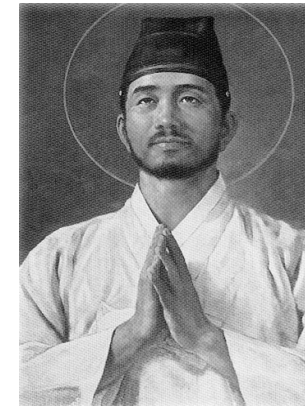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루카(21,37-38 참조)에 따르면,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시어 묵곤 하셨는데, 군중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이 들려주듯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 앞에 곤혹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 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돌씩 모두 떠나갑니다.

왜 나이 많은 자들이 먼저 떠났을까요? 나이 많은 이들이 더 나쁜 죄를 지어서, 아니면 더 현명해서일까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눈길은 그녀에게 생명과 무엇보다도 개인적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태어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사람의 권리를 되찾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 찬미하여라 >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3. 16-21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화답송] 시편 126(125). 1-2 가 라 2 다 라-3 4-5 6 (◎3)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 필리피서 3 8-14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 8.1-11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4/6)	최건화 안젤라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4/7)	백경윤 아네스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4/13)	신미영 미카엘라	천희제 레아	천송희 스텔라	
	잭슨빌 (4/14)	윤미임 데레사	서정원 헬레나	이재민 토마스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334	347	465	414
잭슨빌	489	210	170	125